



시작기자의 단상지

경제한과 시름 날려버린 '추억의 썰매' 타기

동장군(冬將軍)이 극성을 부리던 지난주 무등산은 겨울 눈송이에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코를 스치는 매서운 바람의 기세 등등할도 나른 설원의 고즈넉함 앞에서는 잠시 주춍합니다. 겨울 칼바람에도 소복하게 눈 쌓인 겨울산의 운치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무등산을 찾는 발길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목도리와 장갑으로 중무장한 채 겨울 무등산을 찾는 사람들은 나무 가지마다 피어난 눈꽃에, 바람 따라 날리우는 고운 눈가루에 감탄사를 멈추지 못합니다. 조심조심 뾰족뾰족 눈길을 걸으며 아이처럼 들떠 있던 등산객은 아예 엉덩이를 깔고 앉아 버렸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짙은 서민들 삶의 모습과 같던 짙은 비료 포대. 그 비료 포대 대신 배낭에 담겨있던 듯

자리가 썰매로 변신했습니다. 뒷자리 썰매를 타고 눈 쌓인 언덕길을 달리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름도 판 세상 얘기입니다. 고된 삶의 무게에 눌려있던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밝은 웃음이 한 가득 피어납니다. 눈썰매를 탄 사람들 이를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 싱글벙글 즐거운 광경입니다. 뉴스 보기가 무서울 만큼 여기저기 우울한 소식으로 꽂꽂 얼어붙은 추운 겨울입니다. 아직 봄 날은 멀기만 한데 경제 한파의 매서움은 더 해만 갑니다. 비료 포대 한 장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침없이 언덕길을 내려가던 어린 시절, 그때처럼 거침없이 이 위기를 넘어 달려야겠습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리빙 센스 눈썰 다듬기

◇틈성틈성 뭉치기 눈썰
술이 없는 경우 최대한 자연스러운 선을 그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술이 없다면 제멋대로 눈썰이 자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썰 가위로 먼저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

1. 스크류 브러시로 눈썰 술을 정리하고 한 뒤 눈썰 가위로 베껴나온 눈썰을 정리한다.
2. 눈썰 면도기로 한 번 더 눈썰 아래 지지부진한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한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주면서 정리하면 쉽다.
3. 펜슬로 눈썰 아래 선을 그려준다. 브라운보다는 그레이 브라운 컬러의 펜슬로 눈썰 선을 그리면서 눈썰 꼬리를 만든다.
4. 눈썰 산을 잡은 후 눈썰 꼬리와 연결시켜 선을 그리고 안쪽을 메워준다. 아이브로 색도나 끝이 뾰족한 펜슬은 피하도록 한다.

I love MY student



김광호

여수 여양고등학교가 제37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그동안 만단위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등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교발전을 위한 모든 여양 가족의 노력한 결과 학생들의 실력이 날이 향상이어 이제는 여수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로 발돋움할 기틀을 마련했다. 이 같은 결과는 여수에서 지원하는 방과 후 학교 지원금을 활용해 교육과정의 정상 운

에도 당당하게 1등으로 합격했다. 그리고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도 인문계열 1차 수시에 합격한 후 최종 합격자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높은 대학 진학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성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맞춤형 입시 지도 교육을 강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요 과목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1, 2학년의 영어와 수학 과목을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이동수업을 실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이끌었다. 기초, 보통, 우수반으로 편성해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기초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여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학생은 더 우수하게 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학생들 모두가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또한 매년 1회씩 수도권 대학 탐방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대학생활

명문고를 향한 첫 걸음

영과 방과 후 맞춤형 보충수업, 수도권 주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특별반 수업, 자율학습반 운영 등 학교에 맞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선생님들의 질 높은 수업, 학생들을 향한 열정이 어우러진 결과라 말할 수 있다. 평준화 고교에 입학이 가능한 50% 이내의 학생이 전체 입학생의 17%에 불과하다. 입학생의 성적 분포를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런 뒤떨어진 학력 수준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노력과 교사들의 꾸준한 지도결과 200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대(1차)를 비롯 한국항공대, 단국대, 동국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등 수도권의 주요 대학과 지방 명문대에 다수가 진학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3학년 재학 중인 김민경(18)양이 올해 대학 입시에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특별 전형에 응시한 순천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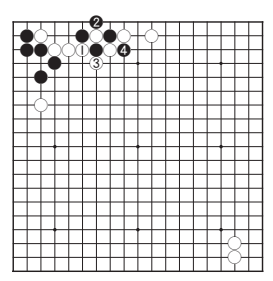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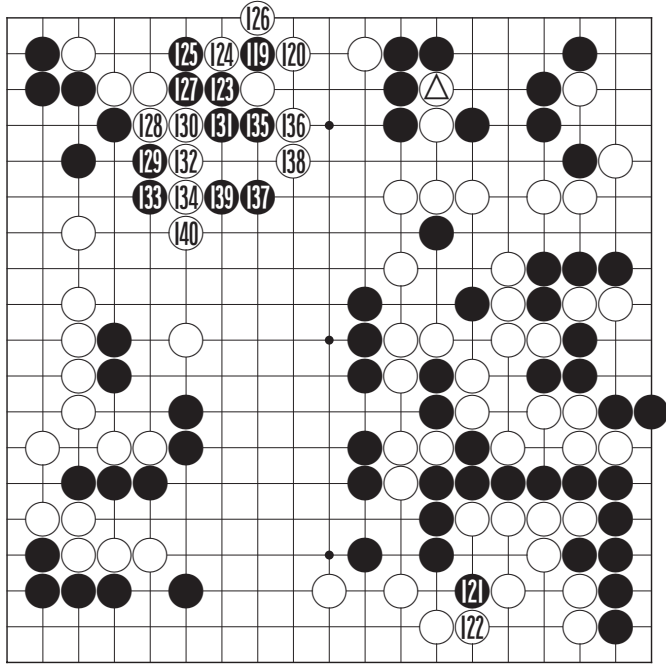
를 체험하게 하여 각자에게 대학 진학에 대한 자극과 꿈을 안겨주고 있다. 위와 같은 여양고 구성원들의 꾸준한 노력은 해마다 대학 진학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가 갑작스럽게 명문고가 된 것은 아니듯이 여양고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엔 대학 진학 성적이 더 나올 것이라 확신을 하며, 지역민들이 보내기를 주저했던 학교에서 이제는 보내고 싶은 학교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선행되기 위해서는 명문고교를 뛰어넘는 우리 학생들의 노력과 교사의 연구와 열정이 더욱 더 필요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에 반드시 지역의 명문고교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여양고등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수 여양고 교사>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진흥탕 싸움

페어우 결승 7보(119~140)

白 함영우·송애슬 黑 오창석·이수빈 (전라남도) (경기도)



<참고도>

발생하게 된 급소로 약수의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때 124로 후퇴하는 것은 흑이 120에 늘

어 119가 백의 허점을 파고 든 기막힌 맥정이 되었다. 이 수는 전보에서 전담의 송애슬이 백 120로 들어 가는 대약수를 두었기 때문에

이때 124로 후퇴하는 것은 흑이 120에 늘

어 119로 단순히 120에 둔 것보다 큰 이득이며 뒷맛도 좋다. 그래서 전담팀은 백 120에 두어 반발했는데 이번에는 흑 123으로 짓히는 수가 성립하게 되었다. 도중에 흑 121로 둔 것은 페어바둑에서 어려운 장면이 나왔을 때 자기보다 고수인 동료에게 공을 넘길 때 흔히 쓰는 수법으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 흑 125 백 126으로 따낸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끊고 3으로 패를 하고 싶다. 흑 4로 끊어 패가 되는데 이 패는 우변과 좌귀에 백의 패감이 많아 백이 유력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2월 16일(음 11월 19일 庚寅)

- 子 36년생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48년생 낯선 곳에 온 것 잡으니 불편하다. 60년생 송사가 발생 수니 인내해야 하리라. 72년생 마지막 마무리를 잘 정리해야 하리라. 84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만족하라. 행운의 숫자 : 02,04
- 丑 37년생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49년생 일이 어려우니 신중해야 한다. 61년생 부친을 찾아보고 문안인사를 드려라. 73년생 기회가 오니 경계망동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 85년생 새로운 만남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4,14
- 寅 38년생 생기가 발산하고 옛것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50년생 서로 다듬어 나가니 좋은 수는 없다. 62년생 숨은 돌리고 주변을 보라. 74년생 시기상조니 마지막 조심할 하라. 행운의 숫자 : 05,13
- 卯 39년생 시기상조이니 송풍이 터진 기운이다. 51년생 시기상조이니 충분한 자기 사랑을 확보하라. 63년생 앞으로 불행사가 예상되니 흥사는 없다. 75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06,15
- 辰 40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한다. 52년생 재수는 바라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64년생 적시에 마무리 작업으로 외연을 좁히고 실리 편으로 집중하라. 76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펴보면 서기가 한다. 행운의 숫자 : 07,17
- 巳 41년생 주변의 식구가 줄어들 수 있다. 53년생 지갑을 조심하라. 65년생 희망의 설계가 조성이 준비를 잘하라. 77년생 희망의 소식은 들려오나 사들지 않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1,22
- 午 42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증식되는 경우가 있다. 54년생 과욕은 금물이고 근면자간 동업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66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성립된다. 78년생 길사는 적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09,10
- 未 43년생 내용은 통한 듯하지만 이면에서 불씨가 움틀 수 있다. 55년생 독신자는 외출을 해보라. 67년생 될 듯 될 듯할 구상만 있고 남성이 많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79년생 중간인의 음모를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8,20
- 申 44년생 마지막 속임수를 조심하고 변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56년생 모든 의원을 살펴뒤로 바꿔라. 68년생 사뭇한 새 맛으로 잠깐의 길사가 있다. 80년생 새로운 희망의 설계가 있을 수 있고 협력자가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27,31
- 酉 45년생 속전속결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이익이 생긴다. 57년생 신중할 것 안쪽으로 보라. 69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지고 우선 만족에 들뜨지 마라. 81년생 옛 인연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 행운의 숫자 : 31,38
- 戌 46년생 원한 맺힌 미운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58년생 잃은 자식 찾은 듯 기쁘나 허망할 수도 있다. 70년생 자기 일을 뒤늦고 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82년생 절대 신규 사업에 참여치 마라. 손해를 가진다. 행운의 숫자 : 32,43
- 亥 47년생 집안이 뒤숭숭하니 침착성을 잃지 마라. 59년생 큰 고통은 없다. 71년생 혹 남의 일에 오르내리도록 관계치 마라. 83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급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43,45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211>	오하오우 니혼고 <1211>	니하오 풍구워 <288>	한자 이야기 <928>
<p>I'm really nervous about my report 제 리포트 때문에 정말 부담이 됩니다</p> <p>A : I'm really nervous about my report. B : When are you presenting your report? A : Tomorrow morning. B : Don't worry about it. I'm sure it will go fine.</p> <p>A : 제 리포트 때문에 정말 부담이 됩니다. B : 언제 그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는데? A : 내일 아침입니다. B : 걱정하지 말게. 분명 잘 될 거야.</p> <p>* nervous : 초조한 * present : 제출하다 * worry about : 걱정하다 * I'm sure = 분명</p>	<p>すごく寒いですね 너무 추워요</p> <p>A :すごく寒いですね。 B :でも昔(むかし)と比(くら)べたら、けっこうあたたかくなったんですよ。 A :~そうですね。でもダンスの奥(おく)から冬の着物をひっぱりださな。</p> <p>A :너무 추워요 B :그래도 옛날하고 비교하면 꽤 따뜻해졌어요. A :그렇죠, 그런데 옷장 안에서 겨울옷을 꺼내야겠네요.</p> <p>* ひっぱりだす : 꺼내다, 끌어내다 * 比(くら)べる : 비교하다 * 奥(おく) : 깊숙한 곳</p>	<p>我哥哥今年二十一岁了。 우리 형은 올해 21살이야</p> <p>A: 你哥哥今年多大了? Nǐ gēgē jīnnián duō dà le? 니 겐개 쉐니엔 닐스이 푸이러 B: 我哥哥今年二十一岁了。 Wǒ gēgē jīnnián èrshíyī suì le. 워 겐개 쉐니엔 얼스이 푸이러 A: 你姐姐今年多大了? Nǐ jiějie jīnnián duō dà le? 니 겐이제 쉐니엔 푸이러 B: 我姐姐今年二十五岁了。 Wǒ jiějie jīnnián èrshíwǔ suì le. 웁 겐이제 쉐니엔 얼스이 푸이러</p> <p>A: 네 형은 올해 몇 살이야? B: 네 형은 올해 21살이야. A: 네 누나는 올해 몇 살이야? B: 네 누나는 올해 25살이야.</p> <p>多次 [duō cì] (차례가) 열반인가 今年 [jīnnián] 올해, 금년</p>	<p>秋毫(추호) 가을 추, 가는털 호</p> <p>추호(秋毫)는 가을 털먹으로, 가을철에 가늘어진 짐승의 털을 가리키고, '조금' 또는 '매우 적은' 의미로 사용한다. 대체로 동물들은 가을이 되면 월동(越冬)을 위하여 털갈이를 한다. 묵은 털이 빠지고 몹시 여러고 가는 솜털이 새로 나오는데 이것을 '추호'라고 한다. 추호는 보통 부정하는 말과 함께 '추호도 범하지 않는다(추호무범, 秋毫無犯)'라는 형식으로 사용한다.</p> <p>'추호무범'은 유방(劉邦)이 항우(項羽)보다도 빨리 함양(咸陽)을 점령한 후, 자신을 죽이려는 항우에게 자신은 결코 배반할 뜻이 없음을 다짐하는 말에서 유래한다. '저는 관내에 들어온 뒤로 터럭만한 물건도 감히 가끼어하지 않았으며, 아전과 백성들의 호적을 정리하고 부고(府庫)를 봉한 채로 함양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라고 말하였다. 이 점을 뒷받 한신은 유방에게 '대왕께서는 무관에서 관중으로 들어오셨을 때 백성들에게 추호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라고 말하면서 유방의 장점으로 부각시켰다.</p> <p>이렇게 해서 추호무범은 군기가 엄하여 민간에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또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는 경우를 비유하게 되었다.</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p><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p>	<p><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